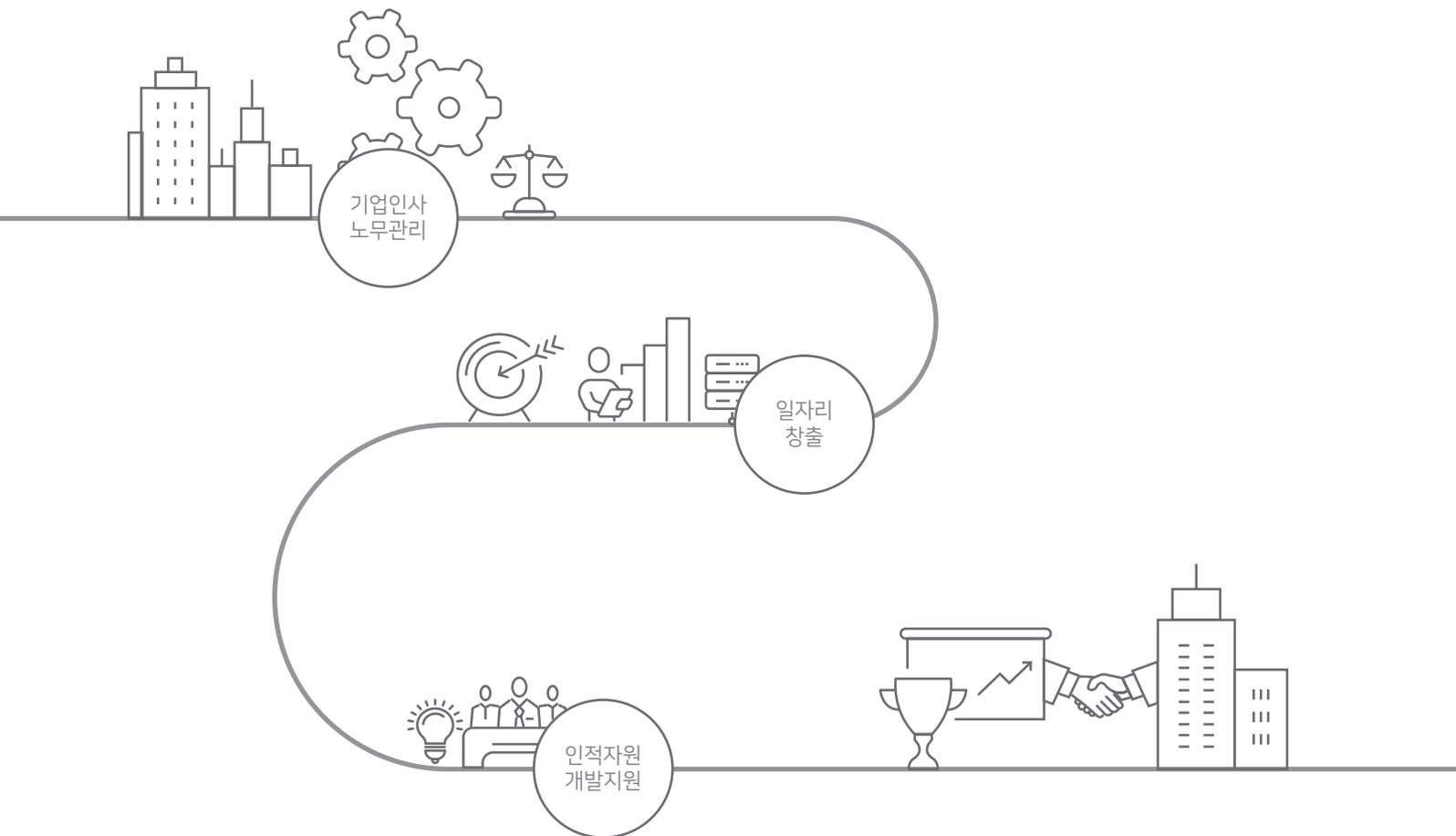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고병일 광주은행장 연임...행장 후보 단독 추천**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현 은행장을 추천했다. 연임 임기는 1년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취임한 후 광주은행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2511억원으로 전년 동기(2151억원)보다 16.7% 늘었다. 연간 누적으로도 2022년 기록한 2582억원의 최대 당기순이익을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 1금고를 수성했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한 점이 연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PPA계약... 탄소중립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과 전북은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SK이노베이션 E&S와 전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금번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고병일 은행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 장애인 생활시설 34곳에 1천만 원 상당 쌀 기부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광주신세계와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협력해 지역상생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광주서구청에서 열린 서구 장애인 보호시설 물품(쌀) 후원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정길수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광주신세계와 기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후원 전달식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광주 현지법인으로 지역과 상생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 미국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대상 수상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의 ‘2023년 애뉴얼리포트(Annual Report 2023)’가 미국 LACP에서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의 애뉴얼리포트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스포츠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권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맹인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글로벌 어워드며, 2001년부터 전세계에서 제출되는 애뉴얼리포트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서로 경쟁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다. 해당 어워드는 매년 대상(Platinum)/금상(Gold)/은상(Silver) 등급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국가,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권위의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타이틀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가 지향하는 가치와 재무활동의 성과를 애뉴얼리포트에 잘 반영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애뉴얼리포트, 경영설명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고로 실천하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 실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최근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와 곡성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 및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통해 김장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빈 용기 회수' 최우수상...자원순환 앞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에 따르면 지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4 빈 용기 우수 회수주체 포상 시상식'에서 생산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빈 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한 회수주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출고비율, 출고 대비 회수비율, 타사병 반환수용 등 정량평가와 함께 신제품의 표준용기 도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74년 전통 주류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DN

### ◆ 보호기관 아동의 IT 환경 개선 'KDN IT움' 개소식 진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자에원에 보호기관 아동의 IT역량 강화를 위한 'KDN IT움' 개소식을 진행했다.

KDN IT움은 '아이들의 IT의 싹을 틔우다'라는 의미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기업인 한전KDN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ICT를 반영한 'KDN IT움, KDN IT ON, KDN IT WE'로 운영하고 있는

데 KDN IT움은 2017년 본사가 있는 나주 금성원에 PC, 모니터 등 IT교육 장비와 관련 시설을 갖춘 IT교육 맞춤형 시설을 최초 구축한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박상형 사장은 "그간 구축된 KDN IT움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IT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사회공헌 감사패 수여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한전KPS는 전남경찰청이 2023년 설립한 '봄봄봄 지원단'에 참여해 지역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일상 회복 지원에 적극 참여해 왔다.

현재 '봄봄봄 지원단'은 상담·지원·힐링·희망·나눔 등 4개 분과로 구성, 60여 개 기관 및 단체들과 손을 맞잡아 협력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실효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가정의 건강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한전MCS

### ◆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고, 2년 연속 최고 등급(Level 5)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에는 생명존중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 특별상을 수상해 그 의미를 더

했으며, 2024년에는 전국 단위 현장 인력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지원하는 등 더욱 폭넓고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성진 사장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한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전MCS는 국내 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에너지

### ◆ 전남 인재육성장학금 꾸준히 기탁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 회)는 전남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500만원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창구 에너지정책과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회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해양에너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 총 4억3,000만원을 기탁해 저소득 대학생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 회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 한 길에 한걸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 ◆ 인재육성기금 2천만 원 기탁



해피니스컨트리클럽(회장 양진석)은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역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기부 누적액이 현재까지 9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양진석 회장은 “소소하지만 나주의 미래인 학생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

으로도 어려운 이웃뿐 아니라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70회 금요조찬 포럼>

### 기업의 위기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진봉 교수)

1670회 금요조찬포럼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기업의 위기 상황에 성공·실패 사례,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위기관리 대응법에 대하여 강연했다.

경영자의 위기는 서비스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원하지 않는 시기,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 “위기관리에 맞서는 경영자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른바 ‘오너 리스크’ 사례를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위기 관리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 콜마’ 사태를 언급하며 구시대적인 경영마인드로 사안을 부정하며 반성 없는 면피성 대응에 그쳐 불매, 비판, 비난이 잇따르면서 경영자가 물러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인 위기 관리 사례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천장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후 경영자가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수습에 나서면서 회사 이미지 추락을 예방했으며, 또한 사망사고는 경영인이 직접 수습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따라오는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위기관리 대응으로는 ① 신속한 초기 대응 ② 경영자가 전면에서 진솔한 사과와 수습 지휘 ③ 철저한 사내 조사 후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 ④ 사고를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 ⑤ 일이 해결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한 위기관리 5계명과 함께 사과의 기술, 사과문 작성 요령, 위기관리 원칙 등을 설명하며 광주경총 회원님들께도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바란다면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 1. 경제동향

### ◆ **경총,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상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결과 발표 (12.1)**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응답 기업 기준)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초를 ‘긴축경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2025년 경영계획 방향)** 2025년 경영계획 수립기업의 기초는 ‘긴축경영’이라는 응답이 49.7%로 2019년 조사(5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현상 유지’는 28.0%, ‘확대경영’은 22.3%로 집계

- **(규모별)** ‘긴축경영’ 응답은 300인 이상 규모 기업(61.0%)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45.7%)보다 15.3%p 높았음. 300인 이상 기업의 ‘긴축경영’ 응답(61.0%)은 2016년 조사(66.7%)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남.

② **(2025년 투자 및 채용계획)**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대상으로 내년 투자 및 채용계획을 설문한 결과, 투자계획은 ‘금년(2024년)보다 축소’(39.5%)가, 채용계획은 ‘금년(2024년) 수준’(4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③ **(2025년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 내년 기업 경영상 주된 애로요인으로는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美, 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19.7%),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16.3%)으로 나타남(복수응답).

④ **(美 트럼프 정부 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년 1월 출범할 美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기업의 82.0%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변. ‘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응답은 7.5%에 그침.

⑤ **(경기 회복 시점 및 성장률 전망)**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25년 하반기’가 28.0%로 나타남.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집계

※ 국내외 주요기관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1.9%(11.28), [KDI] 2.0%(11.12), [IMF] 2.0%(11.20)

⑥ **(주력사업 및 대체사업)** 주력사업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5년 미만’ 응답이 52.7%, ‘5년 이상’ 응답이 47.3%로 나타남.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로 '現 주력사업을 대체할 사업의 진행 여부'를 설문한 결과, '대체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응답(58.8%)이 가장 많았음. '대체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침.

◆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12.3)**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34.5%로 높게 집계되었다. 그 외에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의 순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답한 것과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드러냈음.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경총, 2023): [내국인 구인 어려움] 92.7%,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9%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고, '간접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로 두 번째로 높았음(복수응답).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을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임금,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차이를 보였음.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음(복수응답).

③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2025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89.3%는 '올해 수준(16만 5천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주된 사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만명, 고용부): 5.6('20)→ 5.2('21)→ 6.9('22)→ 12.0('23)→ 16.5('24)

④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인식)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각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 그 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8%로 많았으며, '도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0%에 그쳤음.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 (12.1)**

- **(총괄)** 2024년 11월 수출은 563.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했으며, 수입은 507.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3.5(24.7)→ 10.9(8)→ 7.1(9)→ 4.6(10)→ 1.4(11)
  - 11월 무역수지는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18개월 연속 흑자)
    -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34.1(24.7)→ 35.8(8)→ 64.7(9)→ 31.5(10)→ 56.1(11)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컴퓨터, 선박, 반도체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10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 중 중국( 0.6%), 일본( 1.9%), 인도( 4.1%), 미국(5.1%) 수출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0.4%), EU(0.9%), CIS(9.6%), 중동(17.4%), 중남미(20.3%)수출은 증가 중국 수출은 '24.3월(0.4%)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4.11월에는 감소(0.6%)로 전환 미국 수출은 '23.8월(2.4%)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4.11월에는 감소(5.1%)로 전환

◆ **통계청,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1.29)**

- **(생산)** 2024년 10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3%)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3.8%), 건설업(4.0%)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0.1(24.6)→ 0.6(7)→ 1.1(8)→ 0.3(9)→ 0.3(10)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8.4%), 의료정밀광학(4.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6.3%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4%)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10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9%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3.8(24.6)→ 71.1(24.7)→ 74.2(8)→ 73.4(9)→ 72.5(10)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10월 제조업 재고율은 112.7%로 전월대비 5.9%p 상승(전년동월대비 2.3%p 하락)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제조업 재고율 추이(%): 104.7(24.6)→115.0(7)→110.4(8)→106.8(9)→112.7(10)

- **(소매판매)** 2024년 10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4.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5.8%)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4년 3월(3.4%)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3.6(24.6)→2.2(7)→1.5(8)→2.4(9)→0.8(10)

- **(설비투자)** 2024년 10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5.4%)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8% 감소(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건설투자)** 2024년 10월 건설투자는 토목(9.5%) 및 건축(1.9%)에서 줄어 전월대비 4.0% 감소(전년동월대비 9.7% 감소)

\* 건설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4년 5월(3.2%)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 6.0(24.6)→4.9(7)→9.6(8)→12.9(9)→9.7(10)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1(전월대비 보합),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전월대비 0.1p 하락) 기록

◆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2.3)**

-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비) : 2.6(24.7)→2.0(8)→1.6(9)→1.3(10)→1.5(11)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교통(1.1%)을 제외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4.3%), 음식 및 숙박(2.9%), 교육(2.1%) 등 11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0%)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2.9%)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4년 11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기획재정부, 「OECD 12월 경제전망 발표」 보도 (12.4)**

- (OECD는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약세를 보였던 세계무역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 물가는 서비스업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음식,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

-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4년 3.2%, 2025년 3.3%, 2026년 3.3%로 전망. 세계 경제 (G20 기준)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5.4%, 2025년 3.5%, 2026년 2.9%로 전망
  - ※ (성장률) '24년은 지난 9월 전망치(3.2%)와 동일, '25년은 지난 9월 전망치(3.2%) 대비 0.1%p 상향 조정 (물가 상승률) '24년은 지난 9월 전망치(5.4%)와 동일, '25년은 지난 9월 전망치(3.3%) 대비 0.2%p 상향 조정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4년 2.3%, 2025년 2.1%, 2026년 2.1%로 전망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3%, 2025년 1.8%, 2026년 2.0%로 전망.
  - ※ (성장률) '24년은 지난 9월 전망치(2.5%) 대비 0.2%p 하향 조정, '25년은 지난 9월 전망치(2.2%) 대비 0.1%p 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24년은 지난 9월 전망치(2.4%) 대비 0.1%p 하향 조정, '25년은 지난 9월 전망치(2.0%) 대비 0.2%p 하향 조정
- OECD는 세계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❶중동,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❷물가상승률 완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금리인하 제약 우려, ❸높은 수준의 자산가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 우려, ❹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확대에 의한 금융시장 취약성 증대, ❺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을 지적
- 정책권고 사항으로 ❶향후 통화정책을 지속 완화하되,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한 결정, ❷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❸미래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함.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12.5)

-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증가(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지난 '24.10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 세부적으로는 건설투자(0.8%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수정된 반면, 수출(+0.2%p), 수입(+0.1%p),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 등은 상향 수정.
  - ※ 분기별 성장률(전기비): 0.8(24.3q)→0.5(4q)→1.3(24.1q)→0.2(24.2q)→0.1(24.3q)
- (지출항목별) 건설투자(3.6%)는 전기대비 감소했고, 민간소비(0.5%), 정부소비(0.6%), 설비투자(6.5%), 수출(1.6%)는 전기대비 증가
- (경제활동별) 건설업(1.4%)은 전기대비 감소했으나, 농림어업(2.4%), 제조업(0.2%), 서비스업(0.2%)이 모두 전기대비 증가
- 2024년 3/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4% 증가(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2. 노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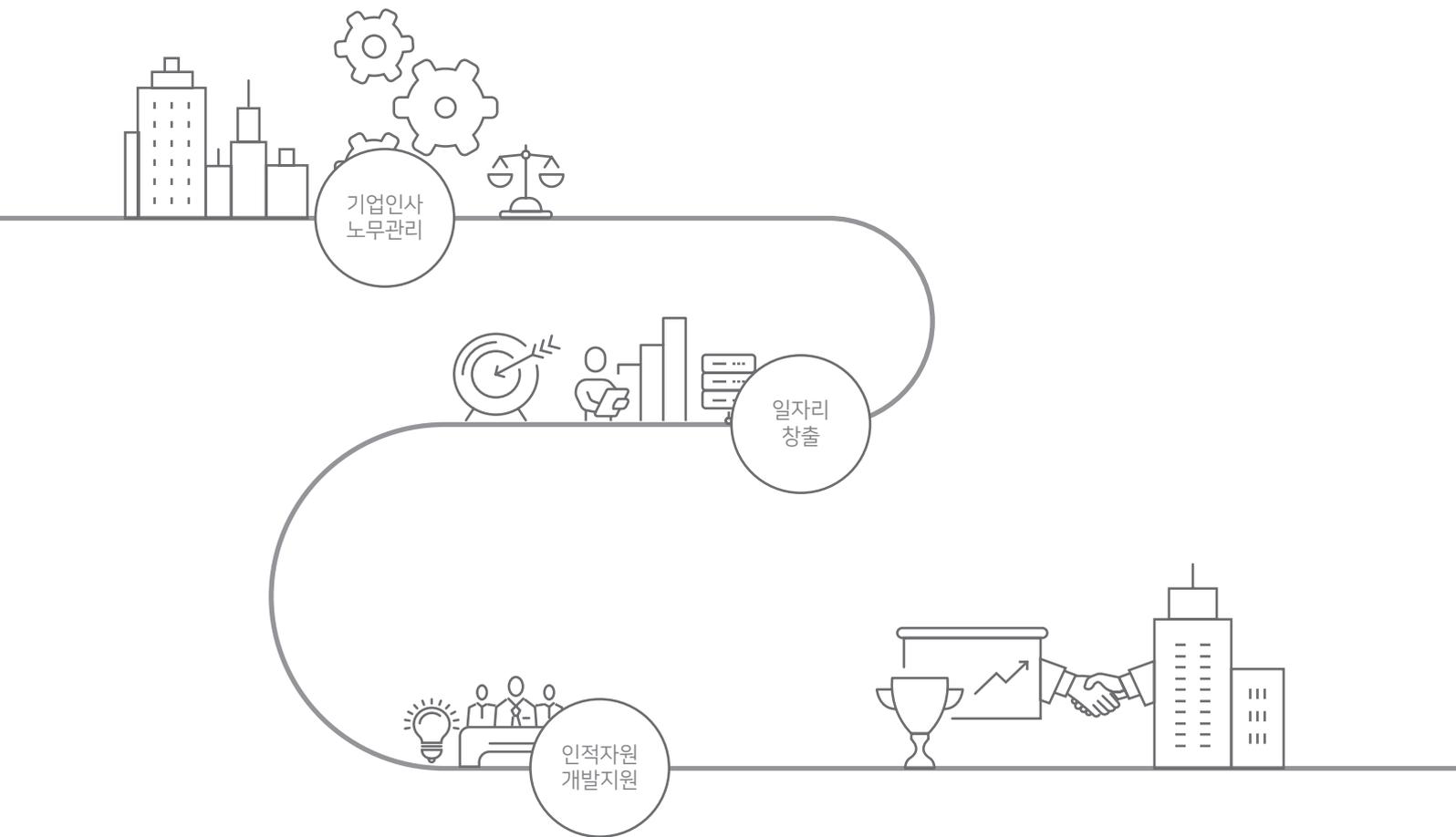
### ◆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및 주요 노동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

- 양 노총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이후 각각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정부 투쟁 계획 논의
- 한국노총은 그동안 유지해온 ‘반(反) 노동정책 심판’ 투쟁 기조를 ‘정권퇴진’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 불참 입장 결정
- 한국노총은 총파업보다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12. 4 산하 조직에 투쟁지침 시달
- 한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결정한 만큼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던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전망
  - ※ 경사노위는 12. 4 입장문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으나, 대화 정상화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
- 민주노총은 12. 4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주요 산별조직들도 투쟁계획 수립
-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12. 4 산업현장에서는 지역본부 및 산별노조 간부 중심의 집회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됐으며, 향후 투쟁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
  - ※ 최근 20년간(2004~2023)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20천일이나,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인 2016년에는 2,035천일로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금속노조는 ① 12. 5, 12. 6 각각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 및 지역별 집회 참여, ② 12. 7(토) 지부(지회) 간부 특근거부 및 결의대회(서울) 참여, ③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2. 11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방침
- 공공운수노조는 12.5~6 공공부문 공동투쟁(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본부) 지원을 강화하고, 12. 7 이후 쟁의 가능 사업장(가스안전공사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대병원지회 등)의 투쟁 결합을 모색한다는 계획
- 서비스연맹은 12. 6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을 중심으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 탈퇴, 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행태 지속**

- 고용부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방해하는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산별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 ※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법원도 산별노조의 산하 지부·지회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은 조합원의 헌법상 권리 박탈이라고 판단하며,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10. 22, 서울행정법원)
- ※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는 2021년 8월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탈퇴 이후 노조 상벌규정 규약을 개정해 위원장 직권으로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한 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부는 해당 조합의 시정을 명령
-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쟁의행의 기간 중 노조의 파업지침을 위반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하는 등 조합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 만연
-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지회는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 10. 11~11. 8 약 한달 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회는 11. 21 총회를 개최해 파업 불참자 51명을 제명하기로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li> <li>◦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li> <li>◦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li> <li>◦ 2년 후 : 1인 480만원</li> </ul>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 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li> <li>◦ 만 35세 ~ 49세 채용 시</li> <li>◦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li> </ul>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하 중소기업</li> <li>◦ 만 40세 이상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li> </ul>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li> <li>◦ 신규 채용기간 : 최근 1년 이내</li> <li>◦ 청년층 연령 : 만 15세~3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li> </ul>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li> <li>◦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li> <li>◦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li> <li>◦ 취업매칭 지원</li> <li>◦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li> </ul>	654-3427
6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li> <li>◦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li> <li>◦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li> </ul>	716-3501